

## 2013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30개 사업 선정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30개 향토자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특색 있는 농수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1·2·3차 산업을 연계시킨 지역의 핵심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시군 단위 사업계획에 따라 제품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향토자원의 지적재산권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와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에 대해 3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규모 내에서 포괄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사업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 자치단체장 및 사업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정부의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사업계획 내용과 사업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향후 향토산업육성이 농어촌 지역 활력 창출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2012년도에 해당 시군이 면밀한 사업추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산업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은 앞으로 1년간 지역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연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단 구성 등 사업이행을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2013년도 사업시작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도별로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문농어업인 육성방안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계 학교 교과과정 개선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문농어업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젊은 전문 인력의 농어업 진출여건 조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담당할 미래 농어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업계 학교의 전문인력 육성 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장 실습 기반 확대 등 현장 중심 교육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수고에 현장 실습장 지원, 신규 교육과정 개발·지원 등을 통해 직업전문학교로 점진적 유도하고,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둘째, 산업 현장과 교육 연계 강화를 위하여 선도농어업인의 겸임교사 활용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 분야 직업 발굴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위한 후견인제 운영으로 농수산업 진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셋째, 신기술·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신규 인력의 창업·취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 도입, 모태펀드, 1인 창조기업을 통해 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진입 젊은 농업인의 농지 확보와 원활한 영농·영양 승계를 위한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젊은 인력의 적재적소 채용 지원을 위해서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와 창업·취업 정보제공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젊은 인력들의 농어업 분야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학교 교육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 지방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